

# 전주시장 예비후보 공약 경쟁 본격화

김승수 - 문 대통령의 '문화특별시' 완성... 역사·문화·생태에 초점

이현웅 - 종합경기장 획기적 개발·입체형 도로교통 체계 도입 등 내세워

엄윤상 - 전주·완주 상생 통합 광역도시·컬리티시티 조성 등 개발 중점

6.13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전주시장 예비후보들 간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김승수 예비후보는 민선6기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전주 문화 특별시 만들기 공약을 완성 한다는 전략이다. 전주 문화 특별시란 전주만의 전통 문화를 앞세우며 국제 포럼, 문화 축제, 역사 문화 등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글로벌 문화 관광 도시, 가장 한국적인 전주 도시로 만드는 핵심 내용이다.

민선 6기에 내건 공약으로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슬로건으로 함께 하는 복지 도시, 활기찬 일자리 도시,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의 4대 핵심 분야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김 예비후보는 "아시아 문화 심장지로 조성한다고 무조건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곳은 개발 하되 주요 방점은 역사, 문화, 생태 도시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가 대표팀의 러시아 월드컵 출정식과 평가전을 축구 대표 도시 전주로 결정해 줄 것"을 대한축구협회 측에 요구했다.

이는 "지방 선거용 전략적 정책 선택이 아닌 오로지 전주시를 위해 고민하고 시민들의 아픔과 눈물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치를 이루겠다"고 선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웅 예비후보는 지난 달 20일 출마 선언을 하고 통큰 경제·행정 전문가를 내세우며 8대

공약 정책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개발에 중점을 둔 8대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 전주 종합경기장 획기적 개발, 복지 구현, 전주민의 구도심, 입체형 도로 교통 체계 도입, 체육 시설 건립, 농 식품 생명 산업 도시 조성, 전주·완주 광역 도시 통합 등의 정책이다.

추가 공약으로는 인사 청문회 도입, 어르신들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 미세먼지 관련 대책 강구, 스마트팜 단지 조성, 평화 체력 공원 조성, 현대 시설 노인 복지 회관 건립 등이다.

이후 22일 민주평화당 엄윤상 예비후보는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 레이스에 참가하며 공약 경쟁이 심화됐다.

엄 예비후보의 공약도 역시 개발에 초점을 뒀다. 공약은 전주·완주 상

생 통합 광역도시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컬리티시티 조성, 천년 문화 도시 만들기 등의 정책이다.

엄 후보는 "천년 전통 문화의 발판 위에 최첨단 기술 등을 접목해 사람이 모이고 돈이 움직이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또 "행정 관료 시대를 끝내고 법률가·경영자 출신인 기업가 경영 마인드를 가진 책임자가 필요한 시기다. 강한 전주, 새로운 전주를 기대해도 좋다"며 "검증된 후보자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정의당에서는 오형수 전북도당 노동위원장이 전주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로써 지방선거 전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선거 경쟁을 치르게 됐다.

각 당 예비후보들은 현장 선거운동에 뛰어 들면서 책임자임을 자처, 하나씩 공약을 발표하며 선거 운동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어 선거 향방이 주목된다.

/채규남 기자

## 전북의 봄 여행상품 해외서도 '인기'

미국·동남아 등 단체 외국인관광객 늘어

전북도를 찾는 동남아, 미국, 독일, 일본 등 단체 외국인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이틀간 미국워싱턴 D.C 전북전통문화체험단은 판소리 체험과 한옥스테이를 했다.

이 단체는 올해 벌써 4년에 걸쳐 판소리 체험을 위해 전북도를 방문하고 있다.

또한 오는 25일과 26일 2차 방문을 포함해 올해만 10회 이상 방문할 계획이다.

4일부터 6일까지는 하와이문화체험단 38명이 진안마이산을 시작으로 전주한옥마을 한복체험 및 한식 체험, 순창고추장체험, 완주 딸기체험, 군산선유도 및 수산시장 등을 체험했다.

하와이 단체관광객 또한 벌써 4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여행상품을 통해 해마다 수백명이 전북도를 방문하고 있다.

김인태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단체관광객 유치에 위해전북에만 있는, 그리고 전북이 강점인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수목적관광상품의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며 "중소규모 단체의 행사를 지역으로 유치해 자연스럽게 관광과 연계시켜 외국인단체관광객이 전북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월에는 동남아관광객 1,700여 명이 전북도 주요관광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제주 4·3, 모두가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교훈” | 송하진 도지사, 현화 분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4일 전주 풍남문광장에 설치된 '제주4·3 70주년 전북지역 국민 분향소'를 방문해 현화 분향하고 제주 4·3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송 지사는 "제주 4·3 70주년 치유와 화합을 위해 전라북도가 함께하겠다"는 문구를 담은 붉은 리본을 분향소에 매달았다. 송 지사의 리본메시지는 7일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추모제에 전달되어 4.3 희생자를 추모하게 된다.

또한 "제주 4.3은 지금도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되새기고 성찰해야 할 역사적 교훈이며, 모든 국민이 제주 4.3의 의미를 기억함으로써 평화와 공존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실현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4.3 70주년 전북지역 국민 분향소'는 전국 20개 도시에서 동시에 발족으로 열리는 '제주4·3 항쟁 기념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전주 풍남문광장에서는 3일부터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고 리본 매달기 행사, 망자를 위한 피리 독주, 4.3 항쟁을 위한 추모곡 낭독, 기적놀이 공연, 실내악, 판소리, 사물놀이, 4·3 추모 창작 공연이 이어진다.

/김진성 기자



체육 전문지도자 간담회

5일 전북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전북도체육회 회장), 종목별 총감독 및 실업팀지도자, 체육지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지도자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송 지사가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 주거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

전북도, 남원 방촌·진안 하향 장수 사치·임실 학암마을 등 4곳 선정 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

전북도는 농어촌지역 주거취약시설 개선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주거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시군공모를 거쳐 신청된 6개 제안사업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2018년 주거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임실군 학암마을, 장수 사치마을, 진안 하향마을, 남원 방촌마을 등 4개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주거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로 지역 주민이 최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전북도자체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주거지 경관 개선으로 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마을주차장 정비, 마을광장 쉼터조성, 위험한간접비등 주거지정비, 마을공동작업장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민공동체와 협력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설계를 거쳐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된다. 거주 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고 취약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주거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로 지역

주민이 최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전북도자체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주거지 경관 개선으로 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마을주차장 정비, 마을광장 쉼터조성, 위험한간접비등 주거지정비, 마을공동작업장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민공동체와 협력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설계를 거쳐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된다. 거주 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고 취약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주거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로 지역

/김진성 기자

## 검찰, MB 9일 기소 방침... 옥중조사 사실상 무산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를 3일째 방문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르면 오는 9일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이 전 대통령을 9일 구속기소할 가능성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틀에서 크게는 벗어나

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기소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동부구치소를 찾아가지 않았다.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 찾아가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상민 기자

###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배길수(1964. 5. 30.생 2016. 3. 19.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장인해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8-단247 상속한정승인

판사 장인해

▶피상속인: 망 배길수(1964. 5. 30.생 2016. 3. 19. 사망)

최후주소: 전북 임실군 신평면 가덕 1길 12-6

▶공고인: 배진주

▶상속한정승인수리일: 2018. 3. 13.

▶공고기간: 2018. 4. 6. ~ 2018. 6. 5.

▶주소: (청구 대리인 이승호의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7-1, 3층(단대동. 법률사무소 해안)

0108495-4886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